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 - 4월의 책 류성룡의 ‘징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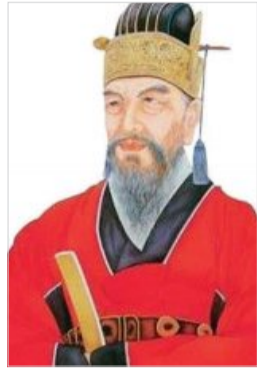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4월호

과거를 징계하여 훗날을 대비하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면 잘못된 후에 그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을 써서 반성한다.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마음을 써서 잘못하지 못하므로 잘못을 반복한다. 우리에게 반성한 후에 남긴 기록물이 귀하다.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란을 겪었는지보다 환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가 더 중요하다. 치욕을 또 당하지 않으려면, 환란의 진실을 마주하려는 자신을 잘 살필 일이다. 환란 속에서도 사적 이익에 눈이 먼 벼슬아치들에 싸인 채, 국가 경영의 길을 잃고 정치 공학에만 빠져 있던 선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그레도 류성룡과 이순신이 있었다. 지금은 누가 선조인가. 누가 류성룡이고 누가 이순신인가. 나는 누구인가

(최진석 류성룡 '징비록'을 선정하며)



조선 중기 문신 서예 류성룡이 쓴 '임진왜란·당파싸움' 반성의 기록 고명환과 28일 인터넷 북토크

나섰던 슬한 인물들의 활약상을 생생히 전한다. 여기다 재앙에 대비하지 못한 무능한 왕조와 전쟁 중에도 당파싸움을 멈추지 않은 정치인 등 당시 정치·사회 상황까지 고발한다.

'징비록'은 많은 조선의 지식인과 위정자들이 읽었다. 다산 정약용은 이 책을 여러 번 탐독하고 독후감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꼭 읽어야 할 책으로 꼽았다. 또 일본에서는 1695년 '조선징비록'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됐으며 중국에서도 읽혔다.

'징비록'은 회고록 형태의 기록 2권, 전쟁중에 임금에게 올린 보고·건의서, 관계 기관이나 책임자들에게 보낸 지시·전달문 등의 공문서 모음인 '근포집', '진사록', '군문등록' 14권과 11항목의 '녹후잡기'로 이뤄져 있다. 류성룡의 위패는 안동 병산서원에 모셔져 있으며 '징비록'은 국보 132호로 지정돼 있다.

4월 마지막 주 수요일(28일)에는 고명환씨와 최교수의 '북토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토크 내용은 광주일보와 새말새물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다. 또 4월 셋째주에는 최 교수가 읽은 '징비록'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쫓겨난다. 그 뒤에는 오로지 글쓰기에만 몰두했다. "나는 지난 일을 경계하여 앞으로 후환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의미로 이 책을 썼다"고 류성룡이 밝힌 '징비록(懲毖錄)'은 제목 그대로 과거의 경험을 징계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회고록이자 보고서다.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광주일보와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4월의 책으로 류성룡의 '징비록'이 선정됐다.

책 서문에서 저자가 밝히듯 '징비록'은 "국가의 중책을 맡아 위태로운 판국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넘어가는 형세를 붙잡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의 기록이자, "뫄난 신하로서 나라를 위해 아무 공도 이루지 못한 나의 죄를 드러내려한다"는 '반성의 기록'이다.

류성룡은 이 책을 통해 참혹했던 전쟁의 경위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과 일본, 명나라 사이의 외교전, 전란으로 인한 백성의 피폐한 생활상, 전쟁에

"적의 배가 바다를 덮으며 물려왔다. 부산 첨사 정발은 그때 절영도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조공하러 오는 일본 배라고만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진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적은 이미 성에 올랐고, 정발은 혼란중에 죽었다. 다음날 동래부가 함락되고, 송상현이 죽었다."(선조실록)

1592년 조선 선조 25년 4월13일, 왜적의 배가 부산 앞바다로 물려들며 시작된 전쟁은 7년이나 계속됐고, 이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꼽힌다. 바로 임진왜란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있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누가' 기록하느냐하는 점일 것이다. 스승 이황이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감탄했던 서예(西廬) 류성룡(1542-1607)은 임란 전부터 고위 관직에 있었고, 전쟁중에는 좌의정과 병조판서를 겸하고 있었으며 다시 도체찰사에 임명돼 군사외교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아 전쟁 수행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임금의 피난, 명나라 구원병 교섭, 평양과 서울 탈환, 권율과 이순신의 발탁, 군사력을 강화 하는 일 등에서 큰 공을 세워 전쟁 중에 다시 영의정에 오르지만, 정유재란 이후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서예 류성룡의 위패가 모셔진 안동 병산서원.

'더클래식 아우름'이 들려주는 세계 명곡, 5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 세번째 월요콘서트 '세계명곡시리즈' 공연이 오는 5일 오후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더클래식 아우름을 초청해 독일·한국·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명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슈베르트 '승어', '일을 마치고', '보리

수', '어머나가 가르쳐 준 노래', 김동진의 '진달래꽃', '동심초', '벚꽃', '내 맘의 강을', 레온카발로 '아침의 노래', 푸치니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거리를 거닐 때' 등이다. 이어 포레 '꿈을 꾸 후에', 비제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도 들려준다.

더클래식 아우름은 젊은 성악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다양한 장르를 통해 찾아가는 예술로서 현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무대에는 소프라노 신은선·윤하나·이예지, 바리톤 박성훈·김경천, 메조소프라노 문주리·김하늘, 피아노 이지은 등이 오른다.

다음 월요콘서트는 오는 12일 열리며, 앙상블 내서 날필하모닉을 초청해 '첫사랑의 설레임 로망스' 공연을 선보인다. 선착순 50명 무료 관람. 문의 062-670-7924. /전은재 기자 ej6621@

예향



'살아난다, 골목길' 이야기...광주비엔날레의 모든 것 '꽃으로 엮은 방패' 펴낸 광재구 시인 '40년 詩 인생'

골목은 추억과 향수가 머무는 곳이다. 하지만 대규모 재개발과 도시화에 의해 골목길은 우리 주변에서 급속하게 사라져가고 있다. 어렵사리 살아남은 일부 골목길은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새로운 문화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이 4월호 특집으로 '살아난다, 골목길'을 준비했다. 삶의 이야기가 광주시 서구 '정춘발산마을'과 목포 '육단이길' 등 광주·전남의 이색적인 골목길과 전국 3대 골목길 명소,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최중인 '양림골목비엔날레', 최근 골목재생사업으로 탄생한 '영화가 흐르는 골목'까지 둘러본다.

예향 초대석에는 등단 40년을 맞은 광재구 시인을 모신다. 하루 24시간, 8만6400초 모두를 시에 바치고자 하는 그의 시에는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가 깃들여 있다. 시(詩)의 길 40년, 최근 '꽃으로 엮은 방패'를 펴낸 시인을 만나 시 세계에 대해 들었다.

문화화제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소식이다. 두 번의 개막식 연기를 거친 우여곡절을 겪은 광주비엔날레가 드디어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전시 일정은 당초 72일에서 39일로 대폭 축소됐다. 이번 행사는 비엔날레 전시관 외에 국립광주박물관,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광주극장 등에서도 작품을 만날 수 있다. 5월 9일까지 진행되는 비엔날레의 모든 것을 살펴본다.

'짜뭍짜뭍 남도 한 바퀴'는 생태도시 함평으로 향한다. 매년 봄이면 나비와 곤충, 자연을 소재로 한 나비대축제 개최해오고 있는 함평군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초록빛깔의 싱그러움은 코로나도 이겨내는 듯하다. 새 생명이 움트는 4월, 함평으로 비대면 힐링 여행을 떠나보자.

대전 이응노미술관의 매력에 빠져보는 시

간. 한옥의 감성과 열린 구조의 공간에서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이곳은 '예향'이 선정한 '문화를 품은 건축물'이다.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건축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유제오그라피'를 도입한 이응노미술관에서는 고암의 대표작 '군상' 시리즈 등 1378점의 소장품들을 만날 수 있다.

'클릭, 문화현장'은 '파카소와 동시대 화가'전이 열리고 있는 정음시립미술관이다. 코로나19라는 조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이곳에는 '불멸의 화가'들의 작품을 보기 위한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피카소는 물론 조르주 브라크, 마르크 사강, 호안 미로, 마리 로랑생, 장 포르티에, 살바도르 달리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는 전시는 5월 16일까지 이어진다.

'우리땅 우리문화' 코너는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조선시대 3대 읍성 중 하나인 고창읍성으로 안내한다. 자연적으로 쌓아올린 성곽의 둘레는 1684m. 이곳에는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뚫으면 무병장수, 극락승천 한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살고 싶은 집, 이야기가 담긴 집'은 광주시건축상을 수상했던 화정동 주택가에 자리한 '녹원재'로 안내한다. 1층과 2층 사방에서 마당을 내다볼 수 있는 중정(中庭=뜰)이 존재하는 이곳은 부부의 꿈과 가족의 희망사항이 실현되는 보금자리다.

이외에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예술단체'는 여성 연주자들로 구성된 퓨전국악밴드 '화양연화'를 소개하고, 한때 KIA타이거즈 팬들을 웃게 했던 '슈퍼 루키'에서 이제는 야구 교실을 통해 지도자로서 또 다른 야구 인생을 걷고 있는 박지훈과의 인터뷰도 준비돼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